“불교 3.1운동 기념관 건립 필요”

김순석 연구위원, 불교학연구회 학술대회서 주장

불교 3.1운동 만해 스님 주도
용성 · 백초월 스님 적극 참여
선현 활동 조명할 기념관 全無
승가제도 · 근대교육 조명 발표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 3.1운동을 조명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11월 9일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3.1운동 이후 불교지성의 100년간의 모색’ 이라는 주제로 열린 추계학술대회서 3.1운동기 한국불교의 활동을 분석하고 현창 · 계승 방안을 내놨다.

‘3.1운동기 한국불교의 역동성과 현재적 반성’ 을 발표한 김 연구위원은 불교계 3.1운동을 확산시킨 것은 만해 한용운 스님이며, 측면에서 적극 가담한 인물은 백용성 스님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만해 · 백용성 스님이 옥고를 치루고 있을 때 불교계 3.1운동을 이끌고 간 사람은 백초월 스님”이라고 전제했다.

김 연구위원은 “불교계는 자비와 평등, 자유와 평화를 중시하므로 만세시위나 만해 스님의 ‘조선독립의 서’ ,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 에서도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서 “내가 살기 위해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교계 3.1운동 정신을 현창 · 계승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전체상을 조망할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만해 · 백용성 스님의 재판기록, 일본 고등경찰보고서, 만세 시위 현황자료, 회고록 등을 통해 연구하며 관련 박사학위자가 배출돼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많은 승려와 교도들이 희생하며 이뤄진 3.1운동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불교계에 만해기념관은 몇 군데가 있지만, 3.1운동기념관은 없다”면서 “불교계 3.1운동기념관을 건립하고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불교계 3.1운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게 하면 1석2조의 포교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단에서는 유명 만화가를 통해 불교계 3.1운동을 조명하는 만화 작품을 만들게 하고, 유튜브에 관련 콘텐츠를 올려야 한다”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술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자료를 통해 검증된 사실들이 콘텐츠화 돼야 역사가 왜곡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서는 승가제도와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도 발표됐다. 고상현 조계종 교육원 연수팀장은 ‘3.1운동 이후 승가제도와 근대 교육’ 을 통해 3.1운동기의 승가조직과 교육에 대해 조명했다.

고 팀장은 “승가교육은 개화기와 대한제국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근대적 교육으로의 발전을 도모했다. 내전의 불교교학 중심에서 사회와 역사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변화한 것”이라면서도 “일제 강점으로 인해 근대교육이라는 것은 조선교육령에 의한 체재로의 편입을 의미한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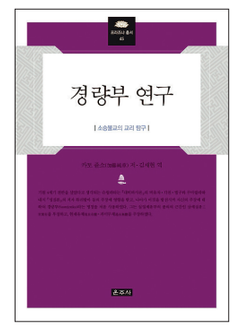
이어 “일제 식민지정책에서 변환을 가져오는 3.1운동 전후에도 일제 체제에 편입하고자 하는 정책이 진행됐다. 각종학교에서 전문학교로의 승격이 이를 말해준다”며 “그럼에도 불교계는 자주적 종단 형성과 근대적 교육으로 발돋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한국불교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을, 김성연 동국대 교수가 ‘3.1운동 이후 한국 불교도의 정체성’ 을 각각 발표했다.

논평자로는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 한동민 동국대 교수, 김영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조기룡 동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아비달마 사상 심층적 연구서

주목! 학술서 - 카토 쥰쇼의 ‘경량부 연구’



논서 순정리론 · 구사론 등 분석
경량부 사상들 주제별로 살펴
검사 출신 변호사 번역 ‘눈길’

역사적으로 불교는 초기불교, 아비달마불교 또는 부파불교 시대를 거쳐 대승불교로 전개됐다. 하지만 한국불교에서는 아비달마 연구 전통이 없고, 도리어 소승불교로 낮췄다. 그러나 설일체유부의 유론(有論)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대승의 공론(空論)은 성립될 수 없는 만큼 아비달마 불교를 배제한 불교학은 결함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발간된 〈경량부 연구〉는 아비달마 연구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카토 쥰쇼 나고야 대학 철학과 교수의 연구서를 완역한 〈경량부 연구〉는 1989년 발간 당시에 동료 학자들로부터 “사계(斯界)의 제1인자에 의한 현시점에서의 집대성”이라는 평가를 받은 책이다.

이 책은 아비달마불교에서 대승불교로의 발전 과정 중 중요한 가교역할을 담당한 경량부의 역사와 사상을 대표적 아비달마 논서인 〈순정리론〉과 〈구사론〉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탐색한 책이다.

〈경량부 연구〉는 2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다. ‘제1장 경량부의 역사’ 에서는 경량부와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인물 · 책 · 전설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량부의 역사를 구성하고 있다.

‘제2장 경량부의 사상’ 은 아비달마 불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촉처(觸處) · 극미 · 낙수(樂受) · 심(心)의 구조 등 12개의 주제들에 대한 경량부의 독특한 사상들을 설일체유부의 사상과 상호 비교해 정리했다. 특히 경량부의 논사 슈릴라타의 사상을 〈순정리론〉 · 〈구사론〉과 주석서들, 기타의 논서를 이용해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경량부’ 는 서기 4세기 중반 무렵에 활약한 슈릴라타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명칭이며, 이는 특정 부파를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유부의 3세실유설에 반대하는 자’ , ‘도리에 부합한 자’ , ‘멋있는 자’ 라는 비유적 의미를 가진 것임을 설명한다. 또한 후에는 ‘현재유체(現在有體) · 과미무체(過未無體)’ 설을 토대로 여러 주장을 펼치는 논사들이 각자 자신들의 주장에 붙인 명칭에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하고 있다.

역자의 이력도 눈길이 간다. 〈경량부 연구〉의 번역자 김재현 변호사는 1986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며 2008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공직 퇴임 후에는 동국대 대학원에 진학해 불교교학을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김 변호사는 “책을 통해 경량부의 사상뿐만 아니라 설일체유부의 사상까지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량부 연구〉는 아비달마 불교의 주요 쟁점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홍성 상하리사지서 통일신라 금동불 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14일 현장 설명회

9세기 추정 7cm 소형 불상
치미 · 막새편 등 유물도 출토
“상하리사지 위상 높았을 것”





홍성 상하리사지 발굴 전경(사진 오른쪽)과 사지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입상(사진 왼쪽)의 모습.

충남 홍성의 한 사지(寺址)에서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금동불입상이 출토됐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11월 14일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전시관에서 홍성 상하리사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열고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홍성 상하리사지 발굴조사’ 에서 9세기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불입상이 발굴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발굴조사결과 중 눈길을 끈 것은 홍성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입상이다. 금동불입상은 7cm 소형으로 대좌와 일체형으로 제작됐으며, 출토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제작 시기는 공반 유물과 출토위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9세기 전후로 추정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청동방울편 · 치미편 · 막새편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돼 당시 상하리사지의 사격과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확인됐다.

홍성 상하리사지 발굴조사는 홍성에서 실시한 최초의 불교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다. 용봉산 일대는 불교문화유적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용봉산 불교유적 중 보존이 시급한 상하리사지에서 지난해부터 시굴조사를 진행했으며, 올해부터는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했다.

홍성 상하리사지는 홍성군 용봉산 빈 절골에 위치한 폐사지이며, 용봉산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능선 중단부에 자리잡고 있다. 급한 경사면에 다단의 대형 석축들을 축조하여 사찰을 조영했고 사지입구에 마애불(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50호)이 조성된 독특한 형태의 산지가람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홍성 상하리사지 발굴조사는 홍성의 대표적인 불교문화 성지로 인식돼 온 용봉산에 대한 최초의 고고학적 성과”라면서 “이번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용봉산 불교문화유적에 대한 연계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3년부터 전국의 (비지정)폐사지를 대상으로 ‘중요폐사지 발굴조사사업’ 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禪, 현대사회와 어떻게 만날까

한국선학회 11월 22일 추계학술대회

선(禪)사상과 현대사회에 어떻게 접점을 이룰지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선학회(회장 김방룡)는 11월 22일 오후 1시 서울 동국대 명진관 A136에서 ‘선사상과 현대사회’ 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선과 인접학문의 연계된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진여에 대한 고찰(안유숙 동국대) △철학으로서의 선 연구(신규탁 연세대) △자연세계에 나타나는 상입과 창발의 연기(양형진 고려대) △염불선과 심리치유(김나래 동국대) △선불교와 사회참여운동(지혜경 연세대)가 발표된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병욱 고려대 강사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김방룡 한국선학회장(충남대 교수)은 “선에 기초한 인접학문과 사상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심리적 치유와 사회참여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선의 실제적 효용성을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